	소식지 제 86 호 (2008년 12월)
발행인: 채희락 편집인: 유은정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발행일: 2008년 12월 5일 URL: http://society.kisti.re.kr/~ksli/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유은정 교수 연구실내 전화: (02) 880-6094 e-mail: ejyoo@snu.ac.kr

1. 회장인사

회원 선생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학기말이 되고 또 연말이 되었습니다. 저와 현 집행부에게는 특별한 연말입니다. 2년간의 임기가 거의 종료되어 마지막 월례 발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비슷한 심정이겠습니다만, 저도 시원섭섭합니다. 드디어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시원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좀 더 잘 했더라면 보다 나은 학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는 섭섭합니다. 그나마 이 정도로라도 우리 학회를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 선생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입니다. 월례 발표회 모임을 충실하게 꾸려 보려고 노력했으며 작년의 PACLIC 21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총무이사 유은정 선생님, 연구이사 류병래, 전종섭 선생님 및 여러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차기 회장직을 맡게 되신 이예식 선생님께서는 지금부터 훨씬 좋은 학회로 발전시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PACLIC 22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ccs.dlsu.edu.ph/nlp-team/paclic22/). 바깥의 열기도 뜨거웠지만 학회장의 열기는 더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Adam Pease와 이정민 선생님을 비롯하여 전체 8명의 초청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 외 29편의 구두 논문과 14편의 포스터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외국인들 중에는 한국측 참여 인원이 가장 많았던 것 같으며 PACLIC의 한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 주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한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열리던 모임이 중간에 아태지역으로 넓혀졌는데, 이번 모임을 계기로 또 다시 동남아 지역까지 그 영역이 넓혀지게 되었습니다. PACLIC 23은 내년에 홍콩에서 열리며 PACLIC 24는 2010년에 일본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 열리는 25주년 행사를 위해 준비 위원회도 구성되었습니다.

PACLIC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료들을 웹상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www.decode.waseda.ac.jp./PACLIC-STEERING/index.html). 그리고 PACLIC 16부터는 발표집이 "ISI Proceedings/Conference Proceedings Citation Index"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www.thomsonreuters.com/products_services/scientific/Conf_Proceedings_Citation_Index). 더 좋은 소식은 "Computer Science Conference Ranking"의 "Topics II: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영역에서 620개 학회 중 49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www.cs-conference-ranking.org/home.html, www.cs-conference-ranking.org/conferencerankings/topicsii.html). 이렇게 높아지는 위상과 더불어 우리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3일 월례 발표회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채희락 드림

2. 2008년 10월 공동학술대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개최

10월 10-11일에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가 주관하고 언어공학연구회, 한국인지과학회, 한국언어정보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가 서울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참가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3. 2008년 11월 공동학술대회 개최

2008년 11월 15일에 현대문법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가 <언어정보의 형식화>라는 주제로 대구 가톨릭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채희락, 정대호 선생님께서 각각 특강을 해 주셨고, 20편의 일반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술대회 준비와 특강 및 논문 발표에 참가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4. [언어와 정보] 논문 모집

► [언어와 정보]에 실을 원고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심사용 논문은 자유로운 스타일로 아래아 한글이나 MS Word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꼭 논문 요약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 외 논문의 스타일은 학회 홈페이지(http://society.kisti.re.kr/~ksli/)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고하실 분은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번지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윤영은 교수 (yeyoon@ewha.ac.kr)

► [언어와 정보]는 일반 논문(general paper) 외에도 소고(squib), 서평 또는 논평(review), 또 이에 대한 답론(reply) 등 여러 형태의 투고를 받습니다. 논문 투고 시 투고 형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 다.

►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 출판 시 라텍 편집비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심사료: 30,000원

논문 게재료:

1) 연구비 수혜 논문: 2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300,000원)
2) 연구비 수혜를 받지 않은 일반논문:
   (i) 저자 중 한 사람 이상이 전임인 경우 1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200,000원)
   (ii) 모든 저자가 전임이 아닌 경우 20,000원 (심사료 포함 총 50,000원)

► 논문 게재에 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원고 제출에 관해 의논하시려면 편집위원장인 윤영은 교수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5.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신 회비로 운영됩니다. 2008년도 연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들께서는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정회원 40,000원, 준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평생회비: 400,000원

► 연회비는 월례발표회 모임에서 직접 내시든지 다음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우체국 012336-01-001683 (예금주: 한국언어정보학회)

► 아울러 주변의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신입회원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6. 2008년 회비 납부 현황

► 평생회원: 강범모(고려대), 곽은주(세종대), 권희상(한밭대), 김용범(광운대), 김은주(이화여대), 김종복(경희대), 김지영(이화여대), 노용균(충남대), 박명관(동국대), 박병수(경희대), 박소영(상명대), 박은주(오사카대), 유은정(서울대), 윤영은(이화여대), 이기용(고려대), 이영헌(조선대), 이익환(연세대), 이한정(성균관대), 이현우(인하대), 전영철(서울대), 정대호(한양대), 정재현(충북대), 조세연(강원대), 조영순(전남대), 최재웅(고려대), 최혜원(이화여대), 홍성심(충남대)

[2003년 12월 이전 평생회비 납부회원: 연회비 선납 처리]
김경애(한경대), 김경학(수원대), 김랑혜윤(고려대), 김미경(대덕대), 김성묵(한국 IBM), 김용환(양산대), 김창익(호서대), 류병래(충남대), 윤애선(부산대), 윤평현(전남대), 이남근(조선대), 이민행(연세대), 이예식(경북대), 정소우(성신여대), 정찬(동서대), 채명희(조선이공대), 채희락(한국외대), 최규련(연세대), 최기선(KAIST), 최현숙 (영남대), 한영균(연세대)

► 정회원: 고영수(한국외대), 김학진(한국외대), 남승호(서울대), 노창화(한국외대), 류수린(서울대), 박소영(서울대), 신근영(한양대), 양재형(강남대), 염재일(홍익대), 이미순(서강대), 이영주(서울여대), 이정

민(서울대), 이해윤(한국외대), 임경섭(동신대), 임홍빈(서울대), 장석진(서울대), 정수정(서울대), 차종열(대전대), 한나래(고려대), 홍문표(성균관대), 홍민표(명지대), 위혜경(한국싸이버대), 김동성(한국외대)

► 준회원: 박수란(서울대), 박상희(서울대)

► 기관회원: 경북대, 고려대, 광운대, 국회, 단국대(서울캠퍼스), 단국대(천안캠퍼스), 방통대, 부산대, 상명대(천안캠퍼스), 상지대, 서울대(인문학도서관), 세종대, 위덕대, 조선대, 한경대, 한국외대(용인캠퍼스), 한양대(안산캠퍼스), 홍익대

► 명단에 착오나 누락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신입회원**(소식지 85호 이후)
평생회원: 박은주(오사카대학)
정회원: 박소영(서울대)

► 회원 주소록은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소 및 이메일,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은 변경된 내용을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락처: 유은정(총무이사) ejyoo@snu.ac.kr)

8. 월례 논문발표회

이번 12월 모임에는 두 편의 기획논문 발표와 두 편의 일반논문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윤경(서울대) 선생님과 김지혜(성균관대) 선생님이 기획논문 발표를 해주시고, 최인철(경북대) 교수님과 송민영(동국대) 교수님의 일반논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월례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류병래 연구이사(ryu@cnu.ac.kr)나 유은정 총무이사(ejyoo@snu.ac.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어정보학회 2008년 12월 월례회 발표논문 초록

Plurality and Distributivity

Yoon-kyoung Joh (Seoul National University)

I will mainly provide a unified compositional analysis for dependent plurals and anti-quantifiers. Furthermore, finding the uniformity in the two uses of plurals and in the three uses of distributive quantifiers, I claim that plural markers such as *s* in English and *tul* in Korean and distributive quantifiers such as *each* in English and *ssik* in Korean are fundamentally the same. This uniformity is attested in a variety of syntactic configurations such as in the argument position or in the adjunct position of intransitive, transitive, and ditransitive sentences.

In presenting this unified analysis, I crucially use two operations: pluralization and group formation. The pluralization operator is directly translated by all kinds of distributive particles such as ordinary and dependent plurals and distributive quantifiers. The group formation produces a collective reading and a maximality effect, further providing a new counting unit to its members. The two operations not only explain all the constructions involved with distributivity, but also adequately account for conditions that constrain distributivity. Even more, the two operations exhaustively account for the Korean plural system. Korean plural expressions that look divergent and unorganized at the surface are, in fact, remarkably systematic at a deeper level that includes groups as well as sums. These two operations can be covertly manifested and the covert operations allow us to explain seemingly unrelated structures in a uniform way.

My analysis, based on the fact that distributivity is plurality, has the advantage of reducing redundancy in the grammar and obtaining explanatory adequacy on empirical grounds. It directly reveals the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a plural marking and a distributive interpretation. The fact that the plural marker produces both plurality and distributivity is not coincidental but reflects a significant principle of natural languages. My account of distributivity based on plurality further explains its natural correlation with cumulativity and maximality. In fact, plurality and distributivity are not only parallel on the semantic level but also on the pragmatic level due to the aspect that distributivity includes collectivity, just as plurality includes singularity.

Long-Distance Bound Local Anaphors in Korean - An Empirical Study of the Korean Anaphor *Caki-casin*

Ji-Hye Kim (SungKyunKwan University)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Korean anaphor *caki-casin*, taken thus far to be a local anaphor, can be bound long-distance in certain cases as an exempt anaphor when appropriate extra-grammatical conditions are satisfied. I make this argument on the basis of an experimental study where the subjects were asked to judge the grammaticality of sentences with long-distance bound *caki-casin* and to choose between the strict and sloppy readings in contexts of ellipsis/proforms. A majority of subjects accepted long-distance bound *caki-casin* and strict readings became easily available in contexts of ellipsis/proforms, indicating that long-distance bound *caki-casin* is behaving as an exempt anaphor. In addition, speakers who accepted sentences with long-distance bound *caki-casin* were sensitive to logophoric factors that are known to influence exempt binding.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core versus exempt binding distinction (Pollard and Sag 1992, 1994; Reinhart and Reuland 1993) exists even in languages like Korean with a rich inventory of anaphors—local and long-distance—suggesting that the core-exempt dichotomy is orthogonal to the local versus long-distance property of anaphors (Cole, Hermon and Huang 2001, 2006; Huang and Liu 2001). More generally, the results indicate that both grammar and the interfaces are involved in anaphor binding.

Double Nominative Construction and ECM Construction in Korean

Incheol Choi and Eunsuk Le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presentation is to reveal how the double nominative construction, which has the properties of discourse oriented languages, coexists with other constructions which are typical of syntax oriented languages. We first address two previous approaches used to treat the double nominative construction and ECM construction. Broadly speaking, J-M Yoon (1989) and Yoon (2004) proposed an analysis in which the two constructions are the manifestation of the same phenomenon. On the other hand, Hong (1997) and Kim (2000) identified the first NP of the double nominative construction as a topic and a focus, respectively. We show that both the analyses provide intuitive insight but have some shortcomings that are apparent when the common distributional properties of the two constructions ar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we suggest that the double nominative construction and ECM construction in Korean involve similar but not identical semantic restrictions (pace J-M Yoon 1989). Specifically, we show that the Korean ECM construction requires that the embedded clause be the *individual level property* of the raising controller in the sense suggested in Carlson (1977). The semantic restriction on the double nominative construction is a little more inclusive since the sentential predicate following the first nominative NP satisfies an *aboutness* constraint. Finally, we shows that the constraint based feature logic in HPSG can well explain the partial parallelism between the double nominative construction and ECM construction.

Proper Treatment of Epistemic Modals

Mean-Young Song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is devoted to providing a proper semantic treatment of epistemic modals. To do so, I argue in this paper that evidentials, which are taken to be sources of the information on which the speaker bases her statement, are incorporated in the semantic analysis of epistemic modals. I also point out some problems with the previous analyses of epistemic modals such as Kratzer (1991), which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works on the semantics of modality. As Ward et al. (2003) discussed, epistemic *would* is stronger than epistemic *must*. Given this, Kratzer's analysis would have to predict that the *would*-accessible best worlds are better than the *must*-accessible best worlds with respect to the ordering sources. That is, *must*-accessible worlds are a subset of the *would*-accessible worlds. This does not, however, hold in contexts such as an exhaustive context where only one answer can be inferred from a given context. Another problem with Kratzer's framework is that it does not deal with weak necessity modals like *should* successfully if we make the limit assumption that there are always best accessible worlds. In order to give a proper semantic treatment of epistemic modality, this paper argues that an inferential evidential is involved in the interpretation of epistemic modals, pointing out that there are close relations between evidentiality and epistemic modality. This might assist us in clearly understanding not only how the speaker chooses to use weak and strong (epistemic) necessity modals, but also why unmodalized sentences are stronger than ones with epistemic modals.

한국언어정보학회 2008학년도 2학기 월례회 일정표
장소: 대우재단 8층 1실 시간: 9:30-13:00

날짜	시간	구분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
09/20 (토)	09:30 10:20	기획	박소영 (서울대)	Plurality and Distributivity of *-Tul* in Korean	김미숙 (상지대)
	Coffee Break (15분)				
	10:35 11:45	*FISA 특강	최재웅 (고려대) 류병래 (충남대) 이용훈 (충남대)	Corpus Linguistics: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Coffee Break (15분)				
	12:00 12:30	일반	김용범 (광운대)	Bare Plural Generics, Categories and Exceptions	
	12:30 13:00	일반	한나래 (서울대)	빈도 정보를 이용한 저자 판별: 조선일보 4인 칼럼을 대상으로	
10/10 10/11 (금/토)	공동학술대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인지과학회, 한국언어정보학회 공동 학술대회 제20회 한글 및 한국어정보처리 학술대회 장소: **서울대학교 신공학동**		
11/15 (토)	공동학술대회		현대문법학회, 한국언어정보학회 공동 학술대회 장소: **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		
12/13 (토)	09:40 10:30	기획	조윤경 (서울대)	Plurality and Distributivity	유은정 (서울대)
	Coffee Break (20분)				
	10:50 11:40	기획	김지혜 (성균관대)	Long-Distance Bound Local Anaphors in Korean - An Empirical Study of the Korean Anaphor *Caki-casin*	
	Coffee Break (20분)				

	12:00 12:30	일반	최인철 (경북대)	Double Nominative Construction and ECM Construction in Korean
	12:30 13:00	일반	송민영 (동국대)	Proper Treatment of Epistemic Modals

*FISA 특강시리즈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11월 20-22일: **PACLIC22, Cebu City, Philippines, http://ccs.dlsu.edu.ph/nlp-team/paclic22